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4주 기간의 학습에 적합한 이 자료는 어떻게 교회가 다양화된 인간 공동체에 대해 증인이 되어 준비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Charles M. Wood 박사의 연구조사에 기초한 본 학습 지침은 연합감리교도들에게 문화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화약고가 되어 버린 사안, 즉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교회가 신학적 대화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목차

서문 - Kim Cape 박사

제1세션: 그 대화는 중요합니다

제2세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3세션: 연합감리교회는 중요합니다

제4세션: 전진의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Kenneth H. Carter 감독의 후기

부록 A: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교회의 비전

저자: Charles M. Wood

부록 B: 그룹 리더들을 위한 도움

감리교는 논란에 매우 익숙합니다. 존 웨슬리는 당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들을 다루었으며 많은 유형의 차이점에 걸쳐 감리교 사회를 단결시키고자 매진했습니다. 본 지침은 독실한 추종자들이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증거를 강화하는 웨슬리 전통의 깊이를 헤아립니다.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GBHEM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출판부는 연합감리교회의 지적 생활에 참여시키고 이를 육성하며 옹호하는 도서들을 출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gbhem.org/about/publications>를 방문하십시오.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

학습 지침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

학습 지침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연합감리교회



HIGHER EDUCATION & MINISTRY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 학습 지침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세계의 변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제자화 사업을 위한 기독교 리더(평신도 및 사역자)의 모집, 준비, 육성, 교육 및 지원에 있어 연합감리교회를 이끌며 섬깁니다. 위원회의 비전은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지적 탁월함, 도덕적 청렴성, 영적인 담대함 및 마음과 삶의 경건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차세대 기독교 리더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교회의 지적 생활을 위한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원회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신도 및 사역자 교육에 헌신하는 웨슬리 전통을 구현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 학습 지침

Copyright © 2017, 연합감리교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음.
CEB 로 표시된 성경 구절은 Common English Bible 에서 인용되었습니다. Copyright © 2011 Common English Bible. 허가를 받고 사용함.

NRSV 로 표시된 성경 구절은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기독교교육분과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1989)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함.
모든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음.

KJV 로 표시된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공유 저작물)에서 인용되었습니다.

"To Be Young"은 Ernest Campbell 의 저작물로서 2012 년 토론토에서 *Presbyterian Record*에 게재되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함.

비판적 논문 또는 고찰에서의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 이 도서의 어떠한 부분도 서면 허가 없이 인쇄 또는 디지털 형식을 비롯한 일체의 형식으로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권리 및 허가에

관한 정보는 출판사, 총회고등교육사역부에 PO Box 340007, Nashville, TN 37203-0007,
전화 615-340-7393, 팩스 615-340-7048 로 연락하십시오. 저희 웹
사이트(www.gbhem.org)를 방문하십시오.

ISBN 978-0-938162-30-8

출판 당시 모든 웹 주소가 정확했으며 사용 중이었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10 9 8 7 6 5 4 3 2 1

제조: 미국

목차

서문 - Kim Cape 박사 00

제 1 세션: 그 대화는 중요합니다 00

제 2 세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00

제 3 세션: 연합감리교회는 중요합니다 00

제 4 세션: 전진의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000

Kenneth H. Carter 감독의 후기 000

부록 A: “An Ecclesial Vision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y Dr. Charles M. Wood

000

부록 B: 그룹 리더들을 위한 도움 000

서문

우리가 진실을

충분히 오래, 끝끝내 굴하지 않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품 속으로 안길 것입니다.

—작자 미상

본 학습 지침은 거룩한 대화로의 초대입니다. 이는 또한 연합감리교도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물론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볼티모어 출신이라면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푸토(모잠비크의 수도) 출신이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가 자라온 방식, 시간 그리고 장소에 의해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Chimamanda Ngozi Adichie 의 수없이 인용된 TED 토크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려면 여기로 가십시오:

https://www.ted.com/talks/chimamanda_adichie_the_danger_of_a_single_story.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연만이 유일한 이야기라거나 우리의 시점만이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는다고 그녀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Adichie 는 그러한 유혹에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대체로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데 제 경험상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 연단 옆에 서서 성경책, 아니면 아무 책이나 들어 올려 보십시오. 앞쪽 줄에 앉은 사람들은 책의 앞 표지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당신의 뒤쪽 성가대석에 있는 분들은

책의 뒷면을 보겠지요. 오르간 연주자는 책등을 스치듯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책의 다른 부분들을 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겠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이 본 것에 자신이 발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들로 "채워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관점을 사용해 전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성경 전체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상정합니다. 우리는 동기를 직감하고 결과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흐릿하게 봅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분명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본 학습 지침은 교회가 심도 있는 신학적 대화와 안목에 목마름을 느낀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권하신 것처럼(그 여인은 이를 깊은 우물물을 의미할 뿐이라고 잘못 받아들였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초대의를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실체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다 함께 생명수를 마시도록 합시다. 본 학습 지침은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풍성하고 다양한 시점들을 사용해 빠진 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결과들은 놀랍고 신선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통로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품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Kim Cape 박사, 총무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연합감리교회

제 1 세션

그 대화는 중요합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기록하라.

—베드로전서 1:15(KJV)

본 학습 지침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아니든 우리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는지 또는 하나의 교파로서 함께 나아가는지 여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이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고,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당면한 이 사안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포용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단들 일부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본 지침을 위해 우리의 **장정**에서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급함에 있어 감리교도라 불리는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감리교 구성원들은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¹ 커뮤니티 또는 복음운동의 구성원이든, 마케도니아, 모잠비크 또는 미국 출신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시간, 재능, 소질, 섬김과 간증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기로 서약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합감리교도로서 우리는 세계의 변혁을 향한 예수그리스도 제자화라는 사명을 공유합니다.

1 성별 및 성소수자의 명명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유익한 지침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231 권 1 호(2017년 1월호)가 있습니다. 이 특집호의 표제는 "성별의 재발견"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래 인간의 성생활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 및 제도는 늘 논의되어 온 사안들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가르치셨고(마태복음 19:4-6, 마가복음 10:6-9), 사도 바울은 인간의 친밀성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집필했습니다(로마서 1:26-27, 에베소서 5 장, 고린도전서 7:1-16, 골로새서 3:18-19). 이 구절들을 비롯해 다른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영광과 오명을 모두 가진 인간으로 묘사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시편 8:5 -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됨, 마가복음 15:24 - 예수가 로마제국의 십자가형으로 사형됨).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 줄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개인으로 또 신앙 공동체로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처럼 우리는 신실한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분열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극심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우리 연합감리교도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본 학습 지침은 연합감리교도들에게 문화적으로 교회적으로 화약고가 되어 버린 사안, 즉 인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복잡하게 엉킨 문제들의 결합체를 숙고해 볼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특정 행사에서 진행된 대담토의의 산물이며,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미국 연합감리신학교 협회 및 전진의 길 위원회 간의 공동 작업입니다. 캔들러 신학대학원(Candler School of Theology)이 2017년 3월 9-12일 이번 행사를 주최하였고, 캔들러 신학대학원 학장인 Jan Love 박사가 이 대담토의를 시작하면서 대화의 중요성과 이 행사에서의 대화가 대부분의

대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대담토의의 참석자들은 연합감리교 신학대학원들²과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의 국제 연합감리교 학자들이었으며, 또한 모잠비크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연합감리교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부록에 포함된 Charles M. Wood의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정식 논문이 언급되었으나, 이 자료에서는 또한 대담토의에서의 논의 및 대화를 참조할 것입니다.

대담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술적 분석 및 규범적 분석이 포함된 다음의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Russell E. Richey 의 논문, "크리스마스 회의에서 총회까지 오늘날의 연합감리교도: 주기적 분열의 2 세기의 삶", Ted A. Campbell 의 소론, "연합감리교회 내 연합의 근거 및 제안된 전진의 길", William J. Abraham 의 "Mexit 을 옹호하며: 연합감리교 내의 불화와 분열", 그리고 Julio Andre Vilanculos 의 "연합감리교회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아프리카인들의 목소리." Anne Burkholder 의 "연합, 포용 및 약속의 충돌: 역사의 교훈"과 같은 역사적 고찰 및 Kenneth J. Collins 의 "인간의 성생활과 교회의 연합: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와 같은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및 기독교적 자원들에서 도출한 소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제출된 논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목회-학자 Jeanne Hoeft 의 "다양성, 정체성, 맥락성 및 진정한 증인", 복음주의 학자들, 예를 들어 Jack Jackson, "나누어진 마음: 분리에 대한 존 웨슬리의 옹호"와 Mark R. Teasdale, "양, 질 및 발칸화: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UMC 의 현 교착상태로 이어진 사도적 사명의 실패", 그리고 예배 및 의식 신학자들, 예를 들어 L. Edward Phillips, "동성 결혼, 정의의 전쟁 및 사회적 원칙: 양립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해결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적 논문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 캔들러 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 개몬 신학대학원, 가렛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아일리프 신학대학원, 오하이오 감리교신학대학원, 퍼킨스 신학대학원, 세인트폴 신학대학원,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원, 웨슬리 신학대학원.

Kendall Soulen 의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논쟁이 신앙고백적 상황(*Status Confessionis*)의 사안인가? 올바른 역사적 유추를 찾아서"입니다. 어떤 논문들은 대단히 개인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Karen Baker 의 논문, "신체접촉에 관하여(*Bodies That Touch*)"와 Lisa M. Allen-McLaurin 의 논문,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있습니다.

이 논문들이 수많은 지식과 시각을 대표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athie Kelsey 의 "죄를 목격할 때 연합감리교도가 그것이 죄인지 어떻게 아는가?", Barry E. Bryant 의 "감리교적 키메라와 '저주받을 악행들'", Philip Clayton 의 "웨슬리주의의 핵심: 수렴과 확산", Morris L. Davis 의 "1939 년 감리교 합병: 종주적 기독교 연합에 관한 사례 연구", Christopher Evans 의 "'공개적/비공개적' 분열에의 참여: 연합감리교 및 근본주의-근대주의 논란의 교훈", Scott Kisker 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의 화합", Sarah Heaner Lancaster 의 "화합을 위한 에큐메니컬적 통찰", Kevin D. Newburg 의 "일어나지 않은 분열", Jørgen Thaarup 의 "기독교적 가르침 및 인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교회의 화합", Kevin M. Watson 의 "'마음과 삶의 경건함': 연합, 경건함 그리고 감리교의 사명" 그리고 Sondra Wheeler 의 "교회 화합에 관한 대담토론 비평"이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로는 Jeffrey Conklin-Miller, Lallene J. Rector 그리고 Elaine A. Robinson 이 있습니다.

대담토론에서 학자들은 소그룹과 대그룹에서 인간의 성생활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이러한 주제들과 기타 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다양화된 인간 공동체의 모델 및 영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다양화된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를 어떻게 찾고 실행할 것인가?"라는 Charles Wood의 질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³ 우리는 문제들이 간단하다거나 대담토론 논문들이 가벼운 읽을거리라고 가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논문들은 가장 뛰어나고 우리의 시간과 힘을 들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연합감리교 학문을 대표합니다. 대담토론 후에 학자들은

3 부록 A 에 포함된 Charles M. Wood 의 대담토론 논문,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교회의 비전"을 참조하십시오.

동료들과의 대화를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7년 말경에 이 중요한 논문들이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자세한 정보는 www.gbhem.org를 방문하십시오).

본 대담토론,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는 성스러운 대화의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우리에게서 성스러운 대담토론과 대화라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 연합감리교도들이 이러한 종류의 대화를 은혜를 실천하는 방법, 즉 성령의 권능과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실로 이 대담토론은 뛰어난 자랑하고 지적도록 논쟁하기 위해 모인 일단의 분열적 지식인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부의 경우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참석한 개개인들이 소그룹에서 서로를 경청하고 신앙과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는 둘 이상이 모이는 곳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또한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⁴

대담토론이 진행되면서 깊은 비탄과 애통의 감정이 일부 참석자들을 압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의 부르심을 확증해 준 어머니라 여기는 교회가 지금 아마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회고등교육사역부 Kim Cape 총무가 간증하였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애통함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이는 시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애통함을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이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담토론 세션들 중 하나가 끝난 뒤 관련된 대화에서 Karen Baker-Fletcher 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안이 있는 걸까요? 흑인 교회를 보십시오.

4 존 웨슬리가 임종 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견뎌내었고 계속해서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절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가는 길을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련의 시간 동안 우리를 치유하고 인도하고 화해시키며 지탱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앞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연합감리교는 지적 탁월함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담토의는 그러한 유산을 주장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대에서 가르친 교수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대담토론에 참석한 학자들과 고등 교육 내 확장 사역자들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두뇌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연합감리교회가 계속해서 고심해 온 가장 성가시고 곤란한 문제들 중 일부를 다루는 대담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모였을 때 이들의 생각이 우리 교단 내 생각의 폭넓은 다양성을 대표함과 동시에 이들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대담토론 동안 이 학자들은 경건한 대화의 시간에 함께 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본 학습 지침은 더 나아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에서 이 경건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연합감리교도들은 머리, 심장인 사람들일뿐만 아니라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전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생각을 다해(나쁜 점까지 포함해 우리 존재의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여깁니다(누가복음 10:27, 마태복음 22:37-39). 성령의 복돋우심과 권능을 받아 우리는 친절한 행위, 정의와 자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실천으로 옮깁니다(야고보서 2:14-26). 이것이 우리 감리교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또한 비참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우리의 신념과 확신을

실천에 옮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현하여 세계의 변혁을 이루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이 인간의 성생활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 사안들 및 기독교 사명에서 진실한 증인과 충실한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4 주 학습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심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심(그리고 우리를 위해 뒤처리까지 해 주심)을 아는 안목의 깊은 바다로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마태복음 14:22-34). 개인적 이득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세계를 변혁하기 위해, 경건한 대화의 이 시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주장하고 우리의 기도, 존재, 재능, 섬김 및 간증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서약을 재차 확증하는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토론 의제

1. 여러분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느꼈던 때를 함께 나누십시오.
2. 경건한 대화의 경험을 함께 나누십시오. 경건한 대화와 평범한 대화를 구별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3. 웨슬리가 무슨 뜻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 당신의 가족, 당신의 교회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에 대해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십니까?

4. 당신의 최선의 자아의 특징 하나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말씀하십시오.

5. 갈라디아서 5:22-26 을 읽으십시오. CEB 성경 버전의 이 구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및 절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간의 성생활, 특히 동성애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중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얼마나 최신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성생활과 성별에 관한 최신 정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7 년 1 월호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웹 사이트
<http://www.nationalgeographic.com/magazine/2017/01/how-science-helps-us-understand-gender-identity> 에서 "새로운 성 정체성(How Science Is Helping Us Understand Gender)"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동성애에 대한 의견 관련 데이터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topics/gay-marriage-and-homosexuality/>로
 가십시오. 이 두 자료는 국제적인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구성 내의 다양한 시각들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자신이 아는 동성애자들의 삶에서 경건의 열매를 목격한 후 동성애에 관한 견해가 바뀌었다는 한 대담토론 참석자의 관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난 몇 년간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8.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 로마서 1:26-28, 유다서 1:5-8, 디모데전서 1:8-11, 갈라디아서 3:27-29 을 보십시오.
9. 흔히 연합감리교도들은 동성애 관련 문제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교회, 어쩌면 당신 자신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10. 일반적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희망에 찬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희망은 자주 위기를 겪은 후 하나님이 미래의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증한 결과로서 찾아옵니다. 필요했던 희망을 찾았던 때, 혹은 희망이 당신을 찾았던 때에 대해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이십니까? 당신의 지역 교회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이십니까? 당신의 교파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이십니까?

제 2 세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누가복음 10:27 (CEB/공동번역)

누가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라고 말합니다(누가복음 10:25

CEB/공동번역). 킹 제임스 버전은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신명기 6:5 절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네 생각을 다하여"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덧붙인 말씀은 그가 하신 대답의 뜻을 바꾸지 않지만 "생각"을 덧붙이심으로써 강조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성경 지식으로

유혹에 맞서심으로써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의 요청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우리는 역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동성애 관련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인 우리의 사역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나 먼저 불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셨을 것처럼 불화에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의견에 차이가 날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한 사람이 상대가 경청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상대가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상대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들먹이거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해설을 가져오거나 또는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하신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가르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각자는 상대가 그저 멍청하다고 믿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저 실종되어 버리고 상대가 이해 능력이 결여되었음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좌절감은 더욱 높아지고 의견 불일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둘 중 누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점에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둘 모두 상대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청하다면 아마도 보다 깊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사악한 사람인 것일까?

우리 교단 내의 동성애에 대한 일부 불화는 불행히도 이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우리 중 다른 사람들이 무지하고 멍청하거나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해 보도록 합시다.

이 소책자는 우리가 인간의 성생활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시길 청합니다. 빌립보서 2:5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RSV) 바울이 너희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 개인이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너희를 가리킨다는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는 너희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고 복종하며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논쟁의 진창에 빠뜨린다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Gaza)의 Abba Dorotheus 는 Abba Serid 의 수도원 수도사였습니다. 기원후 540년 경, 그는 스스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대에 *영성 훈련의 지도*로 집대성된 그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그를 고대이집트의 은둔자, 성 도로테우스로 추대합니다. 이 6세기 기독교도의 가르침 중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사용하여 커다란 원, 하나의 바퀴를 마음 속에 그려 볼 것을 청합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퀴의 굴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무한한 반지름들, 즉 바퀴살들이 있습니다. 이 바퀴살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며,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할 때 그들은 원의 중앙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짐에 따라 서로와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가까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만들지는 아닙니다. 인간이 발 맞추어 걷는다고 하여 반드시 더 그리스도를 닮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저 한 떼의 무리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졌고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과녁에서 빗나갈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이 상기시키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십니다(골로새서 1:18).

따라서 다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도록 합시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지하다거나 사악하다고 책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합니다. 아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Charles Wood 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합감리교의 관점에서 교회에 대해 그가 하는 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대해 그리고 약속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표시와 일꾼¹

존 웨슬리에 따르면 인간은 감격과 사랑과 경배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피조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며 그 곳에서 우리는 이 목적을 경험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영원토록 [우리의] 창조자를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어졌습니다."²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의 소명,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소명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이 현실, 새로운 창조물의 표시이며 그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이 새로운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상하신 신앙 공동체의 표시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소수의 사람이나 우리가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진술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디모데전서 2:4(NRSV/새번역)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Wood 는 우리에게 존 웨슬리가 *신약성서주해*에서 "모두"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로 직접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1 00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책자의 부록 A 에 실린 Charles Wood 의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2 출처는 부록 A 에 실린 Wood 의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00 페이지, 각주 9 를 가리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인간의 자유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를 촉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의적인 참여를 수반하도록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변혁이 단순히 변화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고 더욱 깊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 사랑, 열정 및 정의로 실천할 때 그 사랑을 더욱 완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지금 경험하며,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선행적 은총을 통해 손을 뻗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가 우리를 변혁시켜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는 다른 사람들을 찾는 우리의 인간성(humanness)을 생각할 때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유대를 맺을 것으로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들과 뜻밖의 친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 존경할만하지 않은 사람들(부자든 가난하든)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의 경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유대를 맺는 것은 그들이 *연대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교인 한 친구가 왜 감리교도들은 *연대(connection)*라는 명사를 동사처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대라는 말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이는 감리교도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동으로 잉태되었고 더 많은 운동들을 태동시켰습니다. Charles Wood 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웨슬리 및 그와 연대한 사람들은 확립된 교회적 행동 규범을 넘어 움직였고, 그들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써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교회가 보다 더 완전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여운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웨슬리가 "사회적 성결"이라 부른 것처럼 사랑 안에서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성령의 다른 열매들 안에서의 성장이 실현되었습니다. (00 페이지)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교회가 사랑과 감격과 경배를 위해 조직된 살아있고 관대한 공동체의 표시이고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과는 들쭉날쭉합니다. Charles Wood 가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이, 교회에 관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성장과 상실, 분리와 통합, 심지어 미움과 사랑이라는 대단히 인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을지라도 교회는 또한 인간의 죄와 유한성을 반영합니다.

최선의 상태에서 교회는 *코이노니아*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성령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바로 그 친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 보이는 교회의 두 가지 측면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Charles Wood 는 다음을 제안합니다(부록 A, 00 페이지):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 및 *증인 공동체*. 우리가 아는 형태의 교회는 개인들이 삶의 충만함에 이르는 공동체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 이 두 가지 모두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인간적이기도 하고 신성하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수련회에서 또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회 또는 총회에서 투표할 때, 목회자를 선출할 때 또는 금년 청지기 사역을 계획하기 위해 만날 때, 우리는 또한 매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통해 우리의 노력들이 변혁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회: 신실한 증인

교회는 인간 또한 감격, 사랑, 경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정당한 천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Wood 가 지적하듯이(부록 A, 00 페이지) 이는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이에 대한 웨슬리식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의 삼직무론, 즉 전통적인 표현으로 선지자, 대사장 및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오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십니다. 왕의 직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의 충만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Wood 는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 성찬의 거행 및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들을 증거합니다(부록 A, 00 페이지).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그 역사와 현재 경험의 애매한 혼합체일 것입니다.

성령은 그[교회] 안에서 뒤섞여 있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 눈 앞에 분명히 있기 전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 . . 교회를 발명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교회가 발전되어 온 지금의 형태로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은 자도 없이 교회가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인간적인 면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으며 때로는 다행이기도 때로는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집을 지으십니다. (Paul Valliere, Wood 가 인용함; 부록 A, 00 페이지, 각주 15 참조).

교회: 사랑의 구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일은 주는 이와 받는 이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뜯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언제나 너무도 즐겁습니다. 교회라는 선물을 열어보는 일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Wood가 말하듯이,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 자에게 오는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즉 당신과 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16-17 NRSV/새번역)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리고 많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도로서 사랑을 구현하는 한 방법이 장정의 신학적 임무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임무"는 장정에서 "교회의 교리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나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교리적 확증은 늘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기독교 진리의 식별을 돕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임무에는 '성경적 성결을 이 땅들 위에 전파하는' 우리의 소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교리적 관점에 대한 점검, 갱신, 상술 및 적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특징과 내용을 통해 우리의 교리적 기준은 "우리의 신학적 임무"가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비판적 개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학적 사역은 "비판적이면서 건설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며, "맥락적이면서 성육신적"이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이어야 한다. (*Wonder, Love, and Praise, The Book of Discipline 2012*에서 인용함; 부록 A, 00-00 페이지, 각주 16-17 참조)

결론

사람들이 감리교도들을 부르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는 표시이며 일꾼인 신실한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한 발은 그릇되고 이기적이며 권력에 굽주린 인간 세상의 가라앉는 모래밭에 딛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그리고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계를 신적 자아(Godself)와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신실한 증인이자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면서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되어 모든 이들이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토론 의제

1.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를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 빌립보서 2:5 을 읽고 논의하십시오.
3.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길 바랍니까? 몇 분의 시간을 들여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4. 당신은 어떻게 신실하고 사려 깊은 사도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를 제공해 주십시오.

5. 사려 깊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개인으로서 교회의 일원 및/또는 리더로서
당신에게 왜 중요합니까?

6. 모든 교회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을
모색합니까?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당신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정면으로 맞서거나
협담하거나 누군가가 처리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외면합니까?
당신의 경험상 무엇이 갈등을 처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까?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악한 상태로 변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의 교회가 갈등을
극복했던 때를 함께 나누십시오.

7. 사람들은 보통 사실로 설득되지 않으며 특히 자신이 아는 사실이 당신의 사실과
다를 경우 더욱 그렇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바꾼 때는 언제입니까?

8.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을 소중히 여깁니까?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최근에
배운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9.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변혁적인 사랑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당신의 지역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당신의 교회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 당신의 교회, 연회, 일반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구현합니까?

11.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 팀, 반, 위원회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방법들을 말씀하십시오. 기도와 성경 공부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당신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까?

12. 사회적 증거와 성경적 성결의 전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적 성결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13.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예들을 나누십시오.

14. 당신은 인간의 성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대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 3 세션

연합감리교회는 중요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새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뵈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20-21(NRSV/새번역)

어쩌면 당신의 지역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교회는 교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귀하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 작은 책자를 읽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의 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1995 년 보스니아 전쟁이 끝나기 시작할 무렵 그곳의 감리교도들은 연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상시 모이는 회중의 크기를 고려하여 계획한 사람들은 작은 홀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고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지 회교도들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기독교 교회의 회의에 참석했는지 물었을 때,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줍니다. "당신들은 이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났을 때 당신들은 머물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병사들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신들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한 안수 사역부 이사회 부총무, Robert Kohler 는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일단의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기독교 윤리 과정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코소보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궤도를 벗어난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엄청난 불안이 목사님들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모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족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 Kohler 는 목사님들께 그들의 고향,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국가 그리고 세계가 당면한 중대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보통 답변들은 성, 정직함, 청렴성, 권력 남용 등등에 집중되었었고 Kohler 는 소피아에서도 비슷한 대답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에서 온 목사님들은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단 한 가지 문제만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문제는 "친절히 대접하기", 안전한 곳을 찾아 이제 그들의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도 가족들은 낯선 사람들을 그들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감리교 교회들은 음식과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들은 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이동 중인 사람들을 위한 캠프들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캠프의 감독을 위해 뽑힌 사람이 감리교 평신자 리더였는데 그는 나중에 이 목사님들이 기독교적 환대의 실천을 통해 웨슬리 전통을 실행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 작은 나라의 한 작은 감리교도 집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의 이웃과 실향민들을 돌본 이 사례를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 중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세계의 변혁을 향한 예수그리스도 제자화라는 사명을 가진 하나의 교파로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교회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연합감리교도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연대적이라고 여긴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ussell Richey가 그의 저서 *감리교 연대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의 연대주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해서, 연대주의에 대한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Charles Wood에 의해 인용됨, 부록 A, 00 페이지). Wood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연결(connexion)*이라는 용어의 감리교적 사용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특정 종교 사회들이 그 당시 성공회 성직자의 감독을 받거나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 타당하거나 합법적이라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바로 그런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구성원이었습니다. *Connexion*이라는 용어의 철자가 *Connection*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 또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대*를 상호 의존, 상호 관계, 협의 및 권력 분담 시 협력 관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살던 시대에서 연대는 웨슬리의 지시 하에 있거나 그가 임명한 사람들의 지시 하에 있다는 의미였는데, 이는 성공회 법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에게는 *Connexion*은 강력한 중앙 집중적 권위와 효율적인 명령 계통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Connection*과 대조적으로 *Connexion*에 내재된

긴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권한을 부여 받은 명령 체계를 가진 중앙 통제식입니까, 아니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관계적이며 협의체적이고 권력 공유적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긴장 속에서 유지합니다.

초창기에는 감리교가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감리교가 식민지 시대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도 감리교는 미국 독립전쟁 이후까지 여전히 독립적인 조직체라고 부를 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감리교 교파는 다양한 전신들의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인 1968 년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쳤고, 이 두 교파도 이전에 있었던 합병들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파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Charles Wood는 교파라 함은 영국 개신교를 거쳐 종교개혁까지 일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 고유의 교회 존립 방식이라고 말합니다(부록 A, 00 페이지). Wood는 계속해서 미국 내 모든 교회들조차도 스스로를 교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카톨릭과 성공회 신자들은 스스로를 전 세계적인 교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경험이 그러한 모델과 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Wood는 심지어 침례교도들도 이 생각에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지역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부 거대 교회들과 독립적 선교회 및 초교파 기관들이 안정, 조직 및 공인된 리더십에 대한 필요로 인해 사실상 교파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별 생각 없이,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가장 좋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교회들 중 많은 교회들이

1 미국 감리교의 간략한 역사는 Russell E. Richey, Kenneth E. Rowe 및 Jean Miller Schmidt, *American Methodism: A Compact History*(Nashville: Abingdon Press, 2012)를 참조하십시오.

"연합감리교"라는 단어를 교회 표지판에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단체처럼, 심지어 철저히 그들만의 세상으로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파가 일부 교회들의 관료주의적 필요만을 위한 것이라면 교파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주목 받은 또 다른 질문은: 교파의 개념이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유용한 제도적 형태인이긴 한 것입니까?

교파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관해 일반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UM 구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기관들 중 하나가 이룬 것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반 기관들에 대한 비판은² 이 기관들이 교회들과 충분히 긴밀하게 연대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일반 기관들은 현재 교회들을 깊이 경청하며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BHEM은 학술 출판 프로그램, 보다 폭넓은 대학 사역 리더십 및 교육 기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의료 목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 전통을 따릅니다. 존 웨슬리는 회개의 마음에 대한 내적 갈망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자비로 실현되면 깊은 지식을 갖춘 헌신적인 제자화로 인도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몸과 영혼의 치유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성경 및 기타 말씀들에 관한 독서 자료와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순회 설교의 고층에 더하여 웨슬리는 그의 설교자들이 읽고 공부할 것을 요구했고, 그들의 학습 과정을

2 총회는 일반 기관들(또는 교회 전체에 걸친 기관들)을 설립하여 개별 지역 교회들과 연회의 범위를 능가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와 사역들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체 글로벌 교회를 위한 공통의 비전, 사명 그리고 사역의 제공에 중요합니다. 총회 및 연대사역협의회는 기관 프로그램 및 사역들을 공동으로 감독합니다. 각 기관은 지역 및 총회가 선출하는 평신도와 사역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위원회에 의해 할당되는 감독들 또한 이 위원회들의 감독권을 공유합니다. 이들에게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보관 및 역사 일반 위원회, 교회 및 사회 일반 위원회, 연합 감리교 커뮤니케이션, 제자화 사역, 재무 및 운영 일반 위원회, Wespeth(연금 및 건강 보험), 종교와 인종 일반 위원회, 여성의 지위 및 역할 일반 위원회, 연합감리교 남선교회,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연합감리교 출판부가 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이는 설교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연합감리교회가 총회고등교육사역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의 예가 있습니다. GBHEM은 사역자들의 교육 및 자격인정을 감독하고 개인들의 사역에 대한 소명을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고등 교육을 위한 대출 및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또한 GBHEM을 통해 군대, 병원, 상담 센터, 교도소, 경찰서 및 소방서와 같은 장소에서 사역하는 다수의 고도로 훈련된 사역자와 목사 카운셀러들을 승인합니다. 더 나아가 GBHEM은 리더들을 교육시키며 캠퍼스 사역 및 연합감리교회 역사적 흑인 대학에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GBHEM은 지역 목사들을 위한 학습 과정을 감독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GBHEM은 목사들이 이 과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했고 목사님들이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GBHEM은 전 세계에 걸친 모든 수준의 연합감리교 교육기관들과 협력합니다. 특히 달리 교회와 연관될 일이 없거나 그 혜택을 누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통로를 제공합니다. 일반 기관만이 대담토론과 같은 행사에 전 세계 연합감리교도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연합감리교회는 엄청나게 다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을 가진 여러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일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파라는 점과 관련된 사안들은 동성애 사안들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법률 및 사회적 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동성 결혼식 집행은 일부 지역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 관련 데이터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topics/gay-marriage-and-homosexuality/>로

가십시오. 거기에 국제적인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구성 내의 여러 가지 시각들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담토론은 교단 구조에 관한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는 보다 나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Charles Wood 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 . . 충분히 다양화된 인간 공동체의 모델 및 영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다양화된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부록 A, 00 페이지). 어쩌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 지 모릅니다. 일부 다른 조직적 가능성들은 다음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Charles Wood 는 그의 논문에서 2016 년 세계 감리교 협의회에서 Ted Campbell(마찬가지로 대담토론 참석자)의 한 연설에 대해 말합니다. Campbell 박사는 그의 연설에서 질문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 . . 연합들을 . . . 창출해 내는 분열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즉, 우리를 분열시키는 현재의 문제들은 또한 크리스천 감리교 감독교회(CME) 또는 아프리카 감리교 감독교회(AME)와 같은 우리 웨슬리 및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의 다른 그리고 아마도 보다 중요한 파트너십의 기회를 향해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Charles Wood 와 함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한 화합의 보다 완전한 실현과 증거를 가능하게 하면서 충분한 다양화를 허용하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부록 A, 00 페이지).

그러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 조직을 구성하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재구성하든, 우리는 교파로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든, 우리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보는 시야를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완전성으로 부르는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의료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 젊은 미국 의사가 그녀의 교회를 대표해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한 기관의 후원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아프리카 의사와 그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들 또한 연합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한 달여 가량의 기간에 걸쳐 이 미국 여자와 그녀의 아프리카쪽 상대는 치료와 고통 완화를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몇 시간이 몇 일로 변하면서 그 한 달이 지났고 그녀는 다른 의사와 교대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활동을 통해 감명을 받고 활력이 솟아난 그녀는 두 번째로 아프리카에 돌아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아프리카 의사와 다시 상봉했고 이번에 그녀는 그의 부인들 중 다른 부인을 만났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와 이 아프리카 의사는 시골로 운전해 가서 희생자들을 낫게 하고 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처럼, 그녀가 고국에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가 돌아갈 때, 그녀는 기쁘게도 그녀의 주정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한 번 아프리카 봉사를 수락했습니다. 이 의사는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 아프리카 의사의 부인들 중 또 다른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최소한 세 명의 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녀의 동료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그녀가 최근에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공포에 빠져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그는 자신의 친구가 레즈비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였고 그녀는 일부다처제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과 불완전한, 심지어 죄 많은 그릇이 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트럭의 문이 닫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 의사들이 돕고 치료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에겐 무엇이 보입니까?

토론 의제

1. 당신은 최근 누구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2. 연합감리교도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연합감리교도가 되었습니까?
3. 당신은 소속 교회의 사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교파에 대해서는?
4.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명들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귀하의 가장 의미 있는 선교 경험들에 대해 함께 나누십시오.
5. 귀하가 경험한 연합감리교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십시오.
6. 귀하의 교회는 귀하의 총회, 귀하의 공동체, 소속 교파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7. 귀하는 교파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8. 전 세계 교회 구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적인 교파가 되면 어떤 이점과 장점들이 있습니까?

9. 다양성을 다루는 데 더 유익할 수 있는, UMC 를 조직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까?

10. UMC 가 갈라진다면, 안수, 승인, 교육 감독, 글로벌 선교, 캠퍼스와 대학 및 UMC 에 소속된 기타 기관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 UMC 가 갈라지거나 쪼개질 경우, 귀하의 지역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귀하의 구역, 연회, 세계의 연합감리교 사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2. UMC 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의 목록들을 만드십시오. 일반 기관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무엇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제 4 세션

전진의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 1 서 4:16b-18a(NRSV/새번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돌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12:14-15(NRSV/새번역)

Kim Cape 박사가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2001 년 저는 남아프리카와 모잠비크에 매일 경건 묵상집인 *다락방*의 직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Steve Bryant 를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날 오후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잡지의 아프리카 포르투갈어 버전을 시작하기 위해 그곳에 갔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푸토(Maputo)에서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1 차선 포장도로 위로 이동했는데, 가는 길에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덜컹거리기도 하고 도로의 좁은 갓길에서 빠르게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움푹 패인 곳을 피하기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창 밖을 한가하게 바라볼 때, 길가에서 제 생각엔 오렌지색 건설용 테이프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저는 그것에 만질 수 있을 만큼 거의 손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 마일이고 계속해서 가고 또 갔고 그 오렌지색 테이프는 긴 리본처럼 우리 앞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갑자기 뭔가를 깨닫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건설 현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사에게 이 오렌지색 테이프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 오렌지색 테이프는 지뢰가 있는 곳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나라의 내전에 쓰였던 지뢰들이 들판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꾸벅꾸벅 졸지 않았을 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망이 지뢰였습니다.

사망에 지뢰가 있었는데, 특히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대화, 심지어 경건한 대화의 경우에 특히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모두에게 사연이 있고, 어떤 이야기는 나누고 어떤 이야기는 절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동성애와 교회에 관해 논의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Charles Wood 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촉진하는 데 그야말로 관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여러 번 상기시킵니다(부록 A, 00 페이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기를 피하거나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가장 손쉽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 그리고/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수백 번 말하는지 설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과 의심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보다는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와 사회 전체의 "논란의 쟁점들"과 양극화 전략들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초월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보다 깊은 믿음과 보다 완벽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대담토론의 한 대그룹 토론 중에 Lisa M. Allen-McLaurin 박사는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없애 버리는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를 변혁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Cape 박사는 또한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 시아버지이신 John Gibbs 는 남부 텍사스의 작은 마을인 세귄(Seguin)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스틴(Austin)에서 일했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즉 결혼하지 않은 두 고모들 손에 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John 은 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데이트를 하러 가려고 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키친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보통 피칸이나 검은눈콩의 껍질을 까고 있는—고모들 옆을 걸어가야 했고 뒤에서 스크린문이 닫히기 전, 그가 아무리 빨리 도망치려고 해도, Bess 이모는 "John, 너가 누구와 가족인지 기억하렴"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연합감리교도인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보편 교회 일부의 가족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히브리서 12:1) 우리가 전진하도록 촉구하고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은 하나님의 사명을 좌절시키거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하는 신성한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길래 지금 포기하고 연합감리교회에 등을 돌려 떠나가 버리겠습니까?

당신이 인간의 성생활을 연합감리교회의 화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다른 위협에 직면했었고 니케아 신조를 제정함으로써 더 큰 화합을 찾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원후 325 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위협이 되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교들의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경건한과는 거리가 멀었고 거리는 문자 그대로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적절히 표현할 말, 또는 적어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동일본질(*homoousios*)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끝이 났고, 이 단어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는 위태롭습니다. 사실 일부 지역 교회들은 이미 인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유로 교파에서 탈퇴했습니다. Charles Wood 는 그의 논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분열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한 연합의 보다 완전한 실현과 증거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다양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교파가 무엇인지 재정의해야 합니다(부록 A, 00 페이지). 이것이 가능하긴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Wood 박사는 보충성, 조화로운 다양성, 차별화된 합의 및 수용이라는,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개념을 설명합니다(부록 A, 00-00 페이지).

보충성

보충성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단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는 원칙입니다. 수준이라는 단어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할 수 있지만, 보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계층적 개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허용되는 가장 구체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보충성은 개인이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임무를 그 개인에게서 가져가지 않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상급 당국으로 의사결정권의 이전을 방지하는 것으로 구성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지역 교회나 사역의 맥락에 특권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Wood 는 계속해서 보충성의 한 가지 이점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한 노력이 자원이나 권력에 대한 내부적 투쟁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상호 이해를 향해 노력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맥락이 클 수록 보통 이해관계도 커집니다. 그리고 결정 사항이 갈등을 유발할 경우, 긴장을 점진적으로 줄이기가 더 쉽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결과에 더 개방적이고 만족스러워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다양성

Wood 박사는 조화로운 다양성은 "어떤 면에서 사후 보충성"이라고 설명합니다(부록 A, 00 페이지). 이 원칙은 유럽 개신교 교회들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상충되는 체계를 가진 교회들, 즉 안수 사역과 감독에 있어 다른 구조를 가진 교회들이 서로의 직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Wood 는 계속해서 이 원칙은 공식 교리 및 교리적 기준 내의 다양성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분열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열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겨납니다"(부록 A, 00 페이지).

우리 역사의 이 시점에서 연합감리교에게는 조화로운 다양성이 마치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가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을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Wood 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차이점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차별화된 합의

이 원칙은 의견상 상충되는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나눔과 식별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실제로는 상충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와 닿는 근본적인 원칙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은 상대도 확증할 수 있음을 확증함으로써 각자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연합감리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임을 공언한 사람들을 안수하고자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원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논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렸는데, 대담토론 논문들은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고 따라서 차별화된 합의는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용

이 원칙은 교회만큼이나 오래된 원칙이며 종교회의, 의회 또는 대표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과 같은 협의회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공의회성(conciliarity)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용의 중요성은 매우 커서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적 협의회의 가르침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그 협의회는 권위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관련된 일부 결정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연합감리교도 신자들, 성직자, 연회 및 감독들에게 적어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교단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있는 그 이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구조에 대한 제안¹

대담토의 동안 현재의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공의회적 친교 모델

"공의회적 친교"란 교회들이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조직화할 수 있게 해 주는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전진해 나아가는 방법의 일부로서 (보다 완전하고 의도적으로) 공의회적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협의회적 친교의 조건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연대주의(connectionalism)"를 상상하게 해 줍니다. 공의회적 친교의 수단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연합의 수단과 동일합니다. 이는 말씀, 성사 그리고 직제입니다.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분열된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에 적용할 때,

1 이 모델들은 대담토의 중 한 작은 그룹 대화에서 나왔으며 그룹 진행자였던 Kendall Soulen 박사가 제출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제안이 아니며 제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화합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일부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통 이러한 수단들을 분명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의회적 친교를 위한 몇 안 되는 대표적 조건들에는 사도적 신앙 고백의 공유, 구성원 및 사역의 상호 인정, 성찬식 공유, 적절한 경우 만나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사명 완수를 위한 협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은 UMC가 정치적 조직, 절차 및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이 경우 우리는 교단 내에서 공의회적 친교를 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기껏해야 "협의회 전" 단계에 있다는 것, 즉 이 조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공의회 전 단계에도 지역 또는 전국 교회 위원회 같은 것들에서 협약 및 "통전적 일치" 관계와 같은 것들에 이르는 정도나 단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회 전 단계를 선택할 경우 우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나 단계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타인들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즉 자신이 기독교 신앙 및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타인들이 부정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공의회 전 단계의 관계마저도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회 전 단계 모델

공의회 전 단계 옵션의 개념은 교회들이 말씀, 성사 또는 직제 상의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되는 협의회적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관심의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그 옵션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현 연합감리교회의 뒤를 잇는 교파들이 소속될 수 있는 연합감리교 교회 협의회의 형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새로운 연합감리교 단체들의 연합이(어쩌면 둘이나 셋 정도의)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자치적인 새 단체들에 대한

감독권이나 권위를 갖지 않겠지만 세계 교회 협의회보다는 강한 단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협의회는 회원 교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성생활을 둘러싼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 존재 이유는 연합감리주의의 모든 새로운 실체들 사이의 진정한 친교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것일 것입니다.

회원 교회들은 사도적 신앙, 말씀, 성사 면에서 서로에게서 충분한 공통성을 인정하고 연합감리교 교회 협의회 내 회원자격 면에서 이를 표명하는 사역을 인정하면서 서로와 통전적 일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ELCA) 및 성공회(미정)와의 현 합의와 유사한, 통전적 일치 및 회원과 사역에 대한 상호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이동은 수령 단체의 규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회원과 성직자의 질서정연한 이동을 요구합니다. 각 교회는 자체적으로 감독 및 장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교회는 각자의 자금충당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이론적 해석이 당면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말씀, 성사 및 직제에 관한 해소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분열 또는 내부적 분리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서로를 기독교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각 교회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정체성을 따를 수 있게 하며, 그 정체성이 활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 공동체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를 자극하는 가능성을 공급합니다. 이는 또한 향후 완전한 공의회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감리교 교회들이 연합감리교 교회 협의회와 제휴하는 옵션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무엇이든, 이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잠비크를 여행할 때 Kim Cape 박사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 시간 동안 여행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시장했습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약 40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이 손님들을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마치 하나님의 전용 성가대처럼 천사 같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회의에서 Cape 박사와 다른 방문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이야기들을 신앙의 간증으로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기뻐했고,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우리는 홍수와 질병과 기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식사를 합시다."

그 교회의 여신도들이 이 네 명의 미국인들, 지역구 감독관과 그의 부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를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할 아홉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신도들은 로스트 치킨과 튀긴 감자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Kim 은 치킨 조각의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반으로 자른 다섯 마리의 통닭—열 조각의 치킨—이 있었고 식기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뻗어 반 조각의 치킨을 쥐고서 그것을 뜯은 뒤 "우리는 모잠비크 스타일로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Kim 도 치킨을 집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먹을 때에 그 교회의 교인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들, 흙 바닥 위의 여자들 그리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나무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밥을 퍼서 그 위에 약간의 닭고기 국물을 부었습니다. Kim 은 이것을 보고 "음식을 씹기가 더 어려워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반 마리의 닭고기가 남았고 목사님이

그것을 집어서 손님들에게 드시라고 건넸습니다. 그 때 Kim 은 닭고기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Tyson's 닭고기가 아니었어요. 살아 있는 동안 오랜 시간 뛰어다니 닭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아침 모여서 누구의 닭을 점심으로 잡을지 결정하는 연합감리교 여선교회를 그려 보았습니다. Kim 은 "그 다섯 마리의 닭고기 저녁은 환대의 성사 행위였지만, 그것은 또한 희생적인 나눔의 행동이였습니다. 그 순간 만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의 최고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전부를 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전 세계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연합감리교도들이 되고자 할 때, 현재 인간의 성생활에 관한 문제로 분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손님, 외국인, 이방인,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절히 베풀고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시간, 봉사, 소질, 재능을 바치고 세계의 변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화를 위해 증거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대해 생각하며 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하면서, 1968 부터 1976 까지 뉴욕시 리버사이드 교회(Riverside Church)의 선임 목사였던 Ernest Campbell 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 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다는 것은 자신이 짓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안에서 공부하지 않을 학교를 짓는 것.

어리다는 것은 자신이 파지 않은 웅덩이에서 수영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안에서 수영하지 않을 웅덩이를 파는 것.

어리다는 것은 자신이 심지 않은 나무 아래에

않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아래에 앉지 않을
나무를 심는 것.

어리다는 것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은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에 맞춰 춤추지 않을
음악을 작곡하는 것.

어리다는 것은 자신이 짓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안에서 예배하지 않을
교회를 짓는 것.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과 사랑과 경배에 도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것을 다 같이 약속합니다.

토론 의제

1. 당신의 교회는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합감리교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의 의견으로는 연합감리교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2. 당신은 기도, 참석, 소절, 봉사 및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당신의 교인 서약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성결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3.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어떤 지뢰를 발견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누가 동성애 활동에 대한 당신의 입장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4. 요즘에는 많은 다양한 성별들과 일부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라면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의 교회는 이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5. 당신이 경험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가족, 당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분열시켰습니까?
6. 당신은 어떤 종류의 경청자입니까? 당신이 하는 소리를 누군가 들어 줬다고 느꼈던 때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느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까?
7. 시간을 들여 연합감리교회가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이든 확고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8. 보충성, 조화로운 다양성, 차별화된 합의 및 수용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이 원칙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유익한 원칙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9. 당신의 감독이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을 당신의 교회에 임명한다면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 당신은 동성애자인 사람 또는 LGBTQ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11. 퓨리서치센터의 연구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동성애 활동이 더욱 용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까? 참조: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5/12/support-steady-for-same-sex-marriage-and-acceptance-of-homosexuality/>.
12. 동성애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신실한 기독교인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13. 연합감리교회가 전진해 나아갈 길이 보이십니까? 공의회적 친교 모델과 협의회 전 단계 모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각각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14. UMC 가 하나의 교파로 남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교회의 사명에, 교파의 사명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단으로부터의 분리가 지역 교회들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교파로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역 교단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15. 당신은 기꺼이 당신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기꺼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16. 당신은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17. 당신의 신앙은 지난 1 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후기

대담토론 <교회의 연합과 인간의 성생활: 신실한 연합감리교 증인을 지향하며>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미국 연합감리신학교 협회 및 전진의 길 위원회 간의 공동 작업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Jan Love 학장과 Kim Cape 박사, 이 두 친구들과의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LGBTQ 정체성 및 기독교 화합과 관련하여 교회가 처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를 인식했습니다.

협력의 대안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사일로 안에서 고립된 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섬길 때 저는 행정 회의에서 *사일로*라는 말을 자주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평신도가 '곡물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사일로의 목적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일로는 보통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지만 고립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 의미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어의 교차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다양성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이것에 언제나 인지적 다양성, 기꺼이 다른 방식들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상력입니다.

교리 및 신학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제 교수님이신 Thomas Langford는 다음과 같이 구별했습니다.

교리는 교회의 통제를 반영합니다. 신학은 교회가 미치는 범위를 반영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한다면, 교리는 이미 완성된 대성당의 일부이고, 탐구적인 신학은 가능한 새 건축물에 대한 창의적인 건축학적 비전이자 기획 도면입니다.¹

우리가 보통 교회와 학교로 함께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의 끝은 결국 파괴된 세계와 분열된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해체보다는 새로운 건설에 대한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이 학문적 작업의 열매에 대한 제 바램은 그것이 새로운 건설을

1 Thomas A. Langford, "Doctrinal Affirmation and Theological Exploration," *Doctrine and Theolog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Kingswood, 1991), 204 에 실림.

시작하고, 새로운 대화 파트너들 사이에 우정을 키워 가고, 감독 협의회, 전진의 길 위원회, 다음 총회 대표자와 우리의 더 큰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적 생활과 동떨어진 전진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에 모인 이유입니다. 즉 넓은 범위에 걸친 학자들의 공헌에 대해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이끌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똑같은 지적 훈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28년 동안 목회자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들 중 한 곳에서의 한 종려 주일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났을 때 두 리더가 저와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주일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신자인 John 과 Mary(이름 변경함)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게이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성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두 리더들은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John 과 Mary 에게 연락을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오후 나중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은 저를 환영했고 저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동안 그들은 개인적으로, 격양되어 그들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침묵이 흘렀고, Mary 가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하게 된 답변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당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저는 당신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날 것이었다면 이미 예전에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당신들의 친구들 앞에 섬으로써 당신들은 이것이 우리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동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업반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당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John 과 Mary 는 언제나 그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 년 뒤에 John 이 질환으로 투병하다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수업반은 그와 Mary 와 그들의 아들을 둘러싸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신념을 보다 자세히 들어 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목회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일로와 분열로부터 창의적인 협력과 성취 가능한 새로운 건설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Kenneth H. Carter Jr. 감독
사회자, 전진의 길 위원회

부록 A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교회의 비전

Charles M. Wood

다름 아닌 성 삼위일체의 생명에 근원을 둔 교제는 교회가 의지해 살아가는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화해와 치유의 희망 속에서 상처입고 분열된 인간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선물입니다.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일치하는 정치 조직의 유형,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철저히 포괄적인 범위를 공경하는 유형, 그 은혜의 변화시키는 특징을 인정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는 유형, 그리고 진정한 공통체의 성공을 전복하기 보다는 그에 기여하는 유형이 필요합니다.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연합감리교회에 던지는 질문은 교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질문과 일부 유사합니다: 충분히 다양화된 인간 공동체의 모델 및 영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다양화된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를 어떻게 찾아서 실행할 것인가?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교회의 비전”

2016 총회에서의 조치에 따라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 교회의 비전의 공유*라는 제목의 학습용 문서가 향후 4년 동안 교회 전체에 걸친 학습의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신앙 및

직제 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의 이어지는 글에서 제 목표는 제가 이 학습용 문서의 주안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일부를 강조하고 이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교회—보편 교회 및 특히 연합감리교회—의 화합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몇 가지 소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앙 및 직제 위원회는 비교적 새로운 조직으로서 2008년 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총회에 의해 부주의하게 폐지되었다가 감독 위원회의 조치로 잠정 복원되었고, 2016년 총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된 위임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였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첫째, 교회를 대신하여 신앙과 직제의 사안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수행하는 일과 둘째, 교회를 통해 그러한 신학적 성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²

물론, *신앙과 직제*라는 용어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1 세기가 넘게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시적 화합의 전기독교적 목표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해 왔습니다. 에큐메니컬의 베테랑인 Michael Kinnamon의 "'교회의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실제적 징후들'의 간단한 목록"에서 다음 내용을 차용합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의 공유, 구성원 및 사역의 상호 인정, 성찬식 공유, 적절한 경우 만나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사명

1 이를 인정하는 법률은 의결안 #8007, "Study of Ecclesiology," *The Book of Resolut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6*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6), 676–77 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총회의 필수 공식 언어로 제작되지 않은 관계로 그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어 버전을 http://www.ocuir.org/wp-content/uploads/2016/06/Wonder_Love_and_Praise_final.pdf 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논문에 인용된 구절들은 영어 버전에서 행 번호로 표시됩니다. 학습용 문서와 그 학습 가이드 모두 www.umc.org/CFOWonderLovePraise 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서가 학습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반응을 고려해 크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6*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2016), ¶¶443–50.

완수를 위한 협조.³ 그렇다면 위원회의 이름 자체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올바르게 신앙 및 직제 위원회의 우려 사항과 현재의 기독교 화합 및 종교 간 관계에 대한 감독 위원회의 우려 사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큐메니컬적 맥락 속에서의 교회의 성격 및 사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비롯한 우리의 신학적 사고에 대한 오래된 연합감리교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우려 사항들은 또한 위원회가 가장 먼저 착수한 과제들 중 하나로 교회의 신학적 이해: 연합감리교의 교회학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중대한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학자들과 많은 감리교 분과 리더들 및 그 외 리더들은 교회에 대한 감리교 교리라는 것이 있는지 오랫동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의견은 없다는 의견인 것 같지만, 감리교도들이 암묵적 및 명시적인 많은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이러한 헌신을 표면화시키고, 현재의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헌신에 대해 성찰하며, 이 시대를 위한 일관성 있는 교회에 대한 연합감리교의 이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세계 교회 협의회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오래 기다려 온 교회의 교리에 관한 "수렴 텍스트(convergence text)"를 완성하고 있었고 그 제목은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입니다.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주제에 대한 연합감리교 위원회의

3 Michael Kinnamon, "What Can the Churches Say Together about the Church?" *Ecclesiology* 8 (2012): 296, 그의 저서 *Can a Renewal Movement Be Renewed?*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에서 재판됨. 인용된 구절은 40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용문 내 인용은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Faith and Order Paper 198*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2005), §32 에서 인용했습니다.

4 Faith and Order Paper No. 214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2014),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commissions/faith-and-order-commission/i-unity-the-church-and-its-mission/the-church-towards-a-common-vision>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 사이트에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작업이 이 성과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새로운 에큐메니컬 문서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전 세계 감리교 교회 신자들이 세계 교회 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성명서 제작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연대를 찾기란 전혀 어렵지 않았고, 그러한 연대들은 현재의 학급 문서의 구조와 내용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페이지들을 읽는 독자들이 인식하시겠지만,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라는 제목은 Charles Wesley 의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⁵

웨슬리는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lost in wonder, love, and praise)"이라는 가사를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영국 시인이자 수필가인 Joseph Addison의 찬송가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⁶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는 또한 미국에서 성공회가 약 20년 전에 출판한 증보된 찬송가의 제목이며,⁷ 해당 구절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수년 동안 다른 여러 작품의 제목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히 칭찬할 만한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5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no. 384 / 통일 찬송가 55 장.

6 "당신의 자비를, 오 나의 하나님, / 나의 떠오르는 영혼이 볼 때, / 그 모습에 너무 기뻐 감격과 사랑과 경배에 빠지네(When all thy mercies, O my God, / my rising soul surveys, / transported with the view, I'm lost / in wonder, love and praise)." Joseph Addison, "Hymn on Gratitude to the Deity," *The poetical works of the Right Honourable Joseph Addison, Esq.* (Glasgo: np, 1750), 198 에 수록됨.

7 *Wonder, Love, and Praise: A Supplement to the Hymnal(증보판 찬송가) 1982* (New York: Church Publishing, 1997).

웨슬리식의 삼위일체적 이해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다른 찬송가에서 Charles Wesley는 우리 인간 피조물들은 "삼위일체의 표현(transcripts of the Trinity)"이라고 부릅니다.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피조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한 설교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영원토록 [인간의] 창조자를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어졌습니다."⁹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힘주시는 소명, 천직입니다.¹⁰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그 표시와 일꾼이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학습용 문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웨슬리 또는 감리교의 전제를 밝힙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연합감리교적 생각을 형성하는 세 가지 독특한 신념을 다룹니다. 그 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신념들이 에큐메니컬 문서인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에 나오는 세 가지 주요 주제들과 연결되어, 연합감리교도로서의 우리의 특별한 유산을 더 넓은 에큐메니컬 논의와의 대화로 가져옵니다. 이 두 부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안되고 있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탐구의 과정에서 생기는 교회로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관행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취합니다.

1.

8 "Sinners, Turn: Why Will You Die,"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no. 346.

9 John Wesley, "God's Approbation of His Works," *Sermons II*에 수록, ed. Albert C. Outler, vol. 2 of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397.

10 Charles M. Wood, "Methodist Doctrine: An Understanding," *Love That Rejoices in the Truth: Theological Explorations* (Eugene, OR: Cascade Books, 2009)에 수록, 1-22.

첫 번째 부분에서 확인 된 세 가지 독특한 신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단지 혜택 받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과, 그것이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서술을 위해, 학습용 문서(158-206 행)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 . .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디모테전서 2:4). 존 웨슬리는 *신약성서 주해(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의 논평에서 이 "모든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 바램에는 "그저 일부만이 아닌 가장 작은 일부보다도 더 작은"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진술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들은 강요 당하지 않습니다."¹¹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에 우선하지 않으며 오히려 촉진시키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참여를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보편성에 관한 이 두 가지 점은 그의 저술활동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그의 사역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웨슬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가 영감을 준 운동의 동력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연합감리교 확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는 "칭의",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과 "성화", 즉 우리의 존재의 회복 모두를 가져옵니다. 새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라디아서 5 : 1),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 . .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및 절제"입니다(갈라디아서 5:13,16,19,22). 존 웨슬리의 설교와 수년 간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설교와 간증의 특징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인간 삶의 체험적, 현재적 변화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냅니다: 방금 설명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의 패턴을 배우고 실행합니다. . . .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11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London: The Epworth Press, 1950), 775.

우리를 아마도 우리가 유대를 맺을 것으로 전혀 예상치 않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및 그와 연대한 사람들은 확립된 교회적 행동 규범을 넘어 움직였고, 그들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써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교회가 보다 더 완전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여운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웨슬리가 "사회적 성결"이라 부른 것처럼 사랑 안에서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성령의 다른 열매들 안에서의 성장이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서 실현되었습니다. . . .

이들 신념들이 모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연합감리교적 이해를 형성합니다. 이 신념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발현된 방식은 부분적으로 보다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로 존재해 온 우리의 특별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발현되어 온 이야기는, 논문에서 지적하듯, "지난 2 세기 이상의 성취와 실패, 성장과 상실, 분리와 통합에 대한 복잡하고 종종 모호한 역사—매우 인간적인 역사였고, 그 안에서(역사의 참여자들은 증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결정과 행동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해 오셨습니다"(258-61 행).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교파의 역사와 우리의 에큐메니컬적 노력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빙성 있는 신학적 이해를 갖고자 한다면, 그러한 모호성을 인식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의 여정을 특징지어 온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및 문화적 포로 상태뿐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것들에 저항하고 극복하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권한을 부여 받은 방식들을 인정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2.

이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신념들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최근의 수렴 텍스트의 세 가지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렴 텍스트의 제목은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입니다. 여기서서는 다른 순서를 취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는 확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에큐메니컬 텍스트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시작된다는 인식이 가능하며, 이를 교회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의 화합"이라는 제목의 첫 챕터의 첫 문단은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언적이고 자비로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사명을 계속하기 위해 성령의 힘으로 행동하며 따라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다름 아닌 성 삼위일체의 생명에 근원을 둔 교제는 교회가 의지해 살아가는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화해와 치유의 희망 속에서 상처입고 분열된 인간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선물입니다. (1, 5 페이지)

마태복음 28:18-20의 "지상 명령"을 인용하며 논평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이 되기를 그가 원하셨는지 이미 암시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왕국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의 인간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 삼위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새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의 문서가 존 웨슬리의 가르침,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그리고 성만찬을 위한 우리의 공통된 예배 방식을 일부 인용하여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용 텍스트는 두 번째로(445ff 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에큐메니컬 토론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다양한 느낌과 정의의 간략한 요약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친교인 *코이노니아*에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러한 탐험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의도하신다면, "어째서 기독교가 . . . 최악만큼 널리 퍼지지 않는가?"¹²

12 Wesley, "The Imperfection of Human Knowledge," *Works*, 2:581.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미래의 사고에서 더욱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구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 사이의 구분이 아닌,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교회의 두 가지 측면 사이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교회는 개인들이 삶의 충만함에 이르는 공동체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 이 두 가지 모두가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처럼 연합감리교회 안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너머로 도달할 수 없다고 믿거나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용 텍스트는 그 구분을 사용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보이는"교회라고 불리는 것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교회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또는 아직) 명시적인 증인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므로 하나님과의 친교와 동포와의 친교로 이끌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교회적"입니다. 이 가능성은 (다른 것들 중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우리가 비기독교인 이웃들과 그들 중 다수가 속한 종교 전통들 및 공동체들을 어떻게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특별한 사명, 즉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역의 표시와 일꾼이 되는 사명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행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처하게 되는 특정 상황에 달려 있으며, 물론 이것은 장소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추구할 때에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이 질문은 텍스트 앞부분에서 명확히 밝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독특한 웨슬리 신념의 세 번째로, 그리고 인간을 그들의 소명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표시와 일꾼으로 교회가 섬겨야 하는 방식에 대한 에큐메니컬 문서의 논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대단히 웨슬리적인 접근 방식은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통해서입니다. 삼직무론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세 가지 차원 또는 측면으로서, 전통적 표현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언자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 또는 국왕의 직분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 성찬의 거행 및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조항(Articles of Religion) 및 신앙고백이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에 대한 고전적인 종교 개혁의 정의를 확증하고 또한 기독교 전통의 다른 흐름들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다 함께 교회가 "증인 공동체, ... 예배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 "(652ff.행)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격, 사랑 그리고 찬양*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말씀을 빌리 자면) "이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더 보였고 때로는 덜 보였다"(569ff행)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논하고 있는 가시성은 특정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양, 등록신자나 예산의 규모 또는 건축양식의 장엄함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정 공동체가 그들이 처한 특정 상황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고린도전서 13:6) 사랑을 분명히 보여 주는 정도, 즉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진정한 증인, 예배 및 제자 공동체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이 짧은 논평에서는 그냥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역 및 목회 리더십의 기본 신학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다양성에 관한 에큐메니컬 문서의 유익한 논의—"친교의 삶에서 적당한 다양성은

주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문서에서 확증합니다(28, 16 페이지)— 및 그 선물에 대해 우리가 겪는 몇 가지 힘든 일들(599ff 행)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이 측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지만, *감격, 사랑 그리고 찬양*의 처음 두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앞서 언급한 모호성의 주제로 간단히 돌아감으로써 끝맺습니다.

교회, 세계 및 기독교 생활(*Church, World and the Christian Life*)이라는 교회학에 관한 최근의 저명한 책에서 Nicholas M. Healy는 교회에 대한 너무나 많이 제안된 신학적 해석들이 그가 "청사진 교회론들"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사실에 한탄합니다.¹³ 그들은 문서 상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 400 년 전 Francis Bacon가 "철학자들"에 대해 쓴 글을 떠올립니다. 이 철학자들은 "상상의 연방국들의 상상의 법들을 만들고, 그들의 담론은 너무 높이 떠 있어서 빛을 거의 내지 못하는 별과 같습니다."¹⁴ 우리가 단지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증에 그저 흡족해 하고, 교회가 우리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암시 적으로 부정하거나 최소한 도외시한다면 청사진 교회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전용할 때—무엇을 *전용하다*의 의미는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만들다"입니다—우리는 자신의 용도에 따라 그것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맞춥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교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우리의 신중한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텍스트가 말하듯이(416-26 행) :

다른 종교 전통 및 공동체들과 같이 기독교 교회들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방식으로 다양한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기여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질서, 일관성, 안정, 신념 강화, 동반자 관계, 윤리적 지침 등에 대한 인간의

13 Nicholas M. Healy, *Church, World and Christian Life: Practical-Prophetic Eccles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32-49 passim.

14 Quoted in L. C. Knights, *Explor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4), 115.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교회는 인간이 그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의해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를 들어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게 만들어지면서, 지지자 및 "외부인" 측 모두의 다른 이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초기 수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역사에서 복잡하게 뒤엉킨 인간의 필요, 욕망, 야망 그리고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교회 생활의 그러한 요소들을 분간하는 것이 자신의 교회 생활의 그런 요소들을 분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와 현재의 경험에서 너무도 분명한 이 모호성에 대해 또 다른 최근의 저술가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의 논평에 따르면

교회는 신적-인간적 제도입니다. 성령은 그 안에서 뒤섞여 있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 눈 앞에 분명히 있기 전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 교회를 발명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교회가 발전되어 온 지금의 형태로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은 자도 없이 교회가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인간적인 면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으며, 때로는 행이기도, 때로는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집을 지으십니다.¹⁵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은혜의 선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인간 피조물들과의 공동체로 이끌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가 사랑과 진리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길이 요 진리 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감격, 사랑 그리고 찬양 속에서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람들 또한 배우는 사람이 되고, 그의 명예를 받고, 그에게서 배우도록 돕는 우리의 인간 소명을 회복하도록 부르심과 권능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혜의 학교이자 증인 공동체입니다.

15 Paul Valliere, *Conciliarism: A History of Decision-Making in the Chu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69.

그러나 이것을 확증하면서 우리는 또한 "교회는 신성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현실이다"라는 사실의 함의를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물을 받는 자에게 오는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3.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인 *감격, 사랑 그리고 찬양*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편 교회" 내에서의 연합감리교회의 특정 역할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요? 교회 생태계 내에서 연합감리교회에게 꼭 알맞은 영역 무엇입니까? 둘째, 에큐메니컬 토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연합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삶과 사명 모두에 영향을 주는, "적당한 다양성"을 둘러싼 성가신 문제들을 보다 건설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통찰을 제공합니까? 셋째, 쇠신된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정치 조직, 즉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823-30 행)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연합감리교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식을 제안합니다. 이 표식들은 우리의 전통에만 독점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우리가 그 표식들을 실행하는 성공의 정도는 물론 또 다른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 표식들로 알려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표식(849ff.행)은 은혜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 *범위*라는 용어의 두 가지 의미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소수 특권층만이 아닌 모두에게 제공되는)의 정도, 그리고 은혜의 목표 또는 은혜가 성취하도록 의도된 것(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우리의 완전한 회복, 요한복음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한 "충만한 삶"이라고 부른 것)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두 부분에서 제안된 교회의 비전은 분명히 이 표식과 일치합니다.

연합감리교 정체성의 두 번째 표식(890ff.행)은 우리가 *연대주의*라는 용어와 연관 짓는 정치 조직 및 정신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식은(911ff.행)

전체 교회의 과제로서의 신학적 성찰에 대한 헌신입니다. 교리적 표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적 과제"에 대한 진술도 장정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이 헌신의 중요성이 나타냅니다. 신학적 성찰이 교리 표준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둘 모두를 필요로 하고 확증합니다.

"신학적 임무"는 장정에서 "교회의 교리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나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의 교리적 확증은 늘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기독교 진리의 식별을 돕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임무에는 '성경적 성결을 이 땅들 위에 전파하는' 우리의 소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교리적 관점에 대한 점검, 갱신, 상술 및 적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¹⁶

다름 아닌 그 특징과 내용을 통해 우리의 교리적 기준은 "우리의 신학적 임무"가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비판적 개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신학적 사역은 "비판적이면서 건설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며, "맥락적이면서 성육신적"이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이어야 한다.¹⁷

이런 종류의 신학적 연구는 교회의 모든 책임 있는 조직과 책임 있는 개인에게 맡겨집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에큐메니컬 토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연합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삶과 사명 모두에 영향을 주는, "적당한 다양성"을 둘러싼 성가신 문제들을 보다 건설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통찰을 제공합니까?" 여기 학습용 텍스트(935-46 행)에서 뽑은 적절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갈등은 교회에서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갈등을 예상해야 합니다. 갈등을 만드는 의견의 불일치는 (웨슬리 표현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¹⁸ 이러한 의견 불일치에 심겨져 있고

16 *Book of Discipline 2012*, ¶105 (p. 78). [원본 인용.]

17 *Book of Discipline 2012*, ¶105 (pp. 79-80). [원본 인용.]

18 *The Methodist Societies: The Minutes of Conference*, ed. Henry D. Rack,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의 vol. 10 (Nashville: Abingdon Press, 2011), 778.

또 수반되는 것은 다른, 때때로 숨겨진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어려움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복잡한 역사와 관련 인물 및 그룹의 관계, 정치적 또는 문화적 가치의 차이, 권력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투쟁 등에서 기인하는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의 다양한 근원과 다양성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교회를 사용하는 다양성을 감안할 때, 때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갈등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촉진 또는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갈등은 그것이 일반적인 만큼 복잡합니다.

이 논문은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에 관해 우리 사이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이해—우리 중 누구라도 무엇이든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이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면 그것은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차이는 가치이며, 갈등을 회피하는 것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사려 깊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국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Nicholas Lash는 어느 날 이웃 교구에 대해 "이 교구는 그 곳에서 너무나 작은 자선 단체여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지도 못 할 정도입니다"라고 말한 한 교구 사제에 대해 말합니다.¹⁹ 그것이 지역 교회이든 교파이든 그렇게 말하여질 수 있는 교회에 화가 있을 지어다.

Nicholas Lash 나 우리 자신의 상황처럼, 많은 다른 문화와 맥락 속으로 옮겨온 교회의 상황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의 학습용 문서가 말하듯이(961ff.행),

교회 내의 몇 가지 차이점은 교회가 사역을 수행할 때 다양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능성을 낳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꿉니다. 교회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최선의 대응을 곰곰이 생각할 때, 폭넓은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차이점과 교회의 사명 완수에 각자가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19 Nicholas Lash, "The Church—A School of Wisdom?" *Receptive Ecumenism and the Call to Catholic Learning* 에 수록, ed. Paul D. Murra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72.

공유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풍성한 화합 가운데에서 차이가 유지되는 "융합"의 에큐메니컬적 패턴과 비슷한 그런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더 깊고 풍성한 화합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할 수 없는 차이에 직면할 때, 우리가 "적당한 다양성"을 초과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순간, 우리의 학습용 문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987-92 행):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은 우리가 아직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개념적 자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지적, 감정적 겸손을 쌓고 지혜가 자라도록 해 주는 성격들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막고 거부하는 매우 인간적인 경향에 굴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혹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사리사욕에 지배될 때, 우리는 상호 이해를 와해하고 더 깊은 분리, 나아가 소외를 가져오는 전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논문은 존 웨슬리의 "카톨릭 정신"에 대한 설교와 출판된 *표준설교*의 서문(993-1035 행)에 나오는 그의 친숙한 조언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고는 그것이 받아 들여지고 마음에 닿을 때에만 효과과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단계 위의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릅니다.

학습용 논문에 인용된 웨슬리식의 조언—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의 적어도 일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그의 의견과 같은 조언—이 일부 17 세기 영국 개신교 작가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웨슬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지혜 중 일부가 *마음과 교회의 분열의 원인, 폐해 및 치유책*이라는 제목으로 1792 년 Francis Asbury 감독이 미국 감리교 인들을 위해

편찬 및 출판했습니다.²⁰이것은 두 청교도 지도자, Jeremiah Burroughs와 Richard Baxter의 작품에서 선정된 것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북미의 여러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교파"라고 부르게 된 것의 궁극적인 발생에 관련되었습니다. 이 17 세기 지도자들에게는, 이들이 기존의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것(또는 분리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교회가 보편 교회의 일부이지만 전체 교회가 아니라는 것과, 참된 교회의 범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²¹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가짜이고 종파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여기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한 한 단체가 그들이 최근 갈라져 나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마음의 진실성에 대해서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진실성을 의심 할만한 많은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속임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큰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²²

이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점이 사실은 우리를 진리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러한

20 Francis Asbury, *The Causes, Evils, and Cures of Heart and Church Divisions: the Works of Mr. Richard Baxter, and Mr. Jeremiah Burroughs* (Philadelphia: Printed by Parry Hall, 1792)에서 발췌. 그 책은 19 세기에 자주 재판되었으며 최근 전자적으로 또는 인쇄물로 재발행되었습니다. Abingdon Press 가 2016 년에 총회에 앞서 요약된 의역 "학습 관"을 내놓았습니다.

21 Winthrop S. Hudson, "Denominationalism as a Basis for Ecumenicity: A Seventeenth Century Conception," *Church History* 24 (1955): 36.

22 *An Apologetical Narration* (1643), quoted in Hudson, "Denominationalism as a Basis," 35.

전개된 상황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히, 진리 자체에 관한 한 상대성 교리가 아닙니다. 상대성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²³ 그러한 통찰력을 교회 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차이점을 다루는 방법에 적용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용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 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쇠신된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정치 조직, 즉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1056ff.행)는 논합니다:

[교회의 정치 조직]은 교회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교회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 . . 교회가 교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세상에게 전하는 증거의 한 측면입니다. 교회의 정치 조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한 개방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나타낼 때, 교회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인간에게 가져다 줄 정도의 권능과 명징함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 : 3)는 명령을 수행할 때, 그 후에야 교회는 그 그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핵심적인 신념들과 일치하는 정치 조직의 유형,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철저히 포괄적인 범위를 공경하는 유형, 그 은혜의 변화시키는 특징을 인정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는 유형,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성공을 전복하기 보다는 그에 기여하는 유형이 필요합니다"(1091-95 행).

그것은 정말 대단한 명령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논평 (1095ff.행)에서,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는 감리교의 "회의(conference)" 사용을 활용 자원으로 언급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다른 하나의 존경 받는 웨슬리 개념, *연대주의*의 개념을 잠깐이라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한 가지의 연대주의 개념이 없다는

23 Hudson, "Denominationalism as a Basis," 40.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해서, 연대주의에 대한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²⁴ "연결(*connexion*)"이라는 용어의 감리교적 사용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특정 종교 사회들이 그 당시 성공회 성직자의 감독을 받거나 그와 "연결되어 있으면" 타당하거나 합법적이라고 간주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진짜 성공회 성직자였기 때문에 감리교 사회는 그와 연대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리더십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시대에서 연대는 상호 의존, 상호 관계, 협의 및 권력 분담 등과 같이 우리가 이 단어와 연관시키게 된 일부 함축된 의미를 즉시 취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는 주로 웨슬리의 지시 하에 있거나 그가 임명한 사람들의 지시 하에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대라는 단어는 중앙집권적 권위에 대한 강한 함축과 효과적인 명령 계통에 대한 함축을 가졌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권위가 수반된 거의 모든 방식에는 긴장이 따라온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함축들은 다른 함축된 의미들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는 "공의회성(*conciliarity*)"이 에큐메니컬 논의에서 우리 사이에서 연대주의가 의미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관련된(유의어는 아닌) 용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감리교도들뿐 아니라 여러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감리교도들이 연대("관계의 네트워크"로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방식과 공의회적 사상 간의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²⁵ 공의회성은 지역 기독교 교회 또는 그 단체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끔 그들이 공통된 증거 또는 관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해

24 Russell M. Richey 는이 주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저서인 *Methodist Connectionalism: Historical Perspectives* (Nashvill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2009)을 참조하십시오.

25 예를 들어, Valliere, *Conciliarism*, 10, 30 을 참조하십시오.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 모임을 통해 서로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대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감리교 회의 시스템은 공의회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공의회성"은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한다면 "회의"와 "연대주의" 모두를 유망한 방향으로 옮길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 상호 관계, 협의 및 권력 분담과 관련된 가치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우리의 정치 조직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공의회적 모델은 우리의 현재 개념들의 레퍼토리를 풍성하게 하는, 전 세계적인 교회로서의 미래에 대한 유익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공의회성이 우리의 정치 조직 및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함의를 가지며,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과 갖는 관계와 관련하여 함의가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스스로의 내적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탐구를 지금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글로벌 성격에 관한 실무 그룹이 2008 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우리가 그 글로벌한 또는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세계적인 성격을 수용할 때에 우리는 "세계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세계에 더 나은 버전의 화합과 상호 의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²⁶ 그리고 이 보고서는 교회의 현 구조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회의가 조직 내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도록 권위를 빼앗고 미국 내 교회가 내부 문제를 다루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의회성의 가능성을 더 깊이 들여다 봄으로써 희망과 비평 모두 건설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26 "Worldwide Ministry through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 Report of the Task Group on the Global Nature of the Church," *Daily Christian Advocate, Advance Edition* (2008): 945. 처음 읽을 때 저는 "버전"이 아마도 "비전"이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실제로 그 의미가 경제 세계화 계획들이 제공하는 버전보다 더 나은, "화합과 상호 의존의 더 나은 버전"이었습니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전 단체들이 교회로 조직 된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종파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그 뿌리가 영국 개신교를 통해 종교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교회의 존재 방법"으로서의 교파는 대체로 미국의 상황에 맞춰진 미국적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모든 교회가 종파의 묘사에 바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적 친교 공동체로 여겨온 가톨릭 및 성공회 신자들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적 설정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그러한 프레임에 일부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의 경험과 자기 이해를 그 모델에 맞추는 것을 곤란해 합니다. 많은 침례 교회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며, 신도 집단이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대형 교회들, 독립적인 선교 단체들, 초교파 운동 및 다른 종류의 기독교 기업들이 이 모델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교파가 되는데, 안정, 조직, 승인된 리더십 등에 대한 요구가 시민적 맥락에서 일정한 지점에 도달할 때 "교파"는 종교 조직의 예상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경우에 교파는 기독교 운동의 번창에 필요한 구조와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교파"가 교회학에서 유용한 범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파는 교회에 대한 교회, "중재자" 형태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를 위해—또는 적어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에 대해 한 학생은 "교파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사이의 두 가지 현실을 중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파는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할 때에만 올바르게 존재합니다. . . . 교파가 스스로를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선포가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우상 숭배입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파가 우리의 특정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개념적 범주인지 여부는 여전히 답이 없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토론을 위해 제기된 한 질문은 교파가 세계적인 맥락에서 유용한 제도적 형태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확증적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스로를 전 세계적인 친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성공회 및 가톨릭 신자들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를 적어도 그 맥락에서 그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교회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루터교, 개혁 교회 및 비국교파 개신교 전통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 맥락에서 교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조직되었지만 세계적인 교파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신 미국에는 장로교가 있고, 독일에는 복음주의 교회(그 자체도 약 20 개의 지역 단체들로 구성됨), 라이베리아에는 루터 교회가 등이 있습니다. 루터교 세계 연맹 (Lutheran World Federation)과 개혁 교회 세계 공동체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유기적인 화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의회적 친교와 비슷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ichael Kinnamon 의 "교제의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실제적 징후들"의 목록이 지적했듯이, 교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화합의 성격"에 대해 함께 성찰하면서 공의회적 친교와 같은 무언가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목표로서 오래된 이상적 또는 유기적 화합을 대체해 왔습니다.

이 "교파"가 여러 대륙의 많은 국가에서 매우 다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 하에서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구조를 고안해내기 위한 지난 40 년 이상 동안의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임 단체들의 노력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세계 교회"를 위한 교파

27 Barry Ensign-George, "Denomination as Ecclesiological Category: Sketching an Assessment," *Denomination: Assessing an Ecclesiological Category* 에 수록, ed. Paul M. Collins and Barry Ensign-George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11), 6.

모델을 상정하고 심지어 고집하기까지 한 이유로 어느 정도까지 이 반복된 노력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²⁸ 실제로 저는 상대적으로 무지하지만(완전히 천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이상 숭배의 종류인 *교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그 결과가 결정되었는지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무지로 인해 묻게 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까지 교단 이외의 다른 모델들이 진지하게 이러한 토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는지를 보다 건설적으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교과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교과 모델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얼마만큼의 생각을 했습니까? 교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전통적인 형태와 기능에 있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아주 다른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필요와 관련하여 연합감리교 전통 내뿐 아니라 보다 넓은 기독교 전통 안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스스로를 "공동체들의 공동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수년간 함께 모인 일단의 루터교 및 카톨릭 신학자들은 공동체로서의 보편 교회 또는 교회들의 친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제안했습니다(*communio ecclesiarum, Gemeinschaft der Kirchen*).²⁹ 몇 년 전에 한 중견 정교회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 안의 협의회의 장소와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 . .

28 1998 까지의 개관은, R. Lawrence Turnipseed, "A Brief History of the Discu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s a 'World Church'"를 참조하십시오. *The Ecumenical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s of "The Global Na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 실림, ed. Bruce Robbins (New York: General Commission on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Concerns, 1999), 12-34. 지난 20 년간의 비슷한 설명과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9 Group of Farfa Sabina, *Communion of Churches and Petrine Ministry: Lutheran-Catholic Convergences*, trans. Paul Misner (Grand Rapids, MI: Eerdmans, 2014).

교회 자체를 협의회로 보아야 합니다."³⁰ 그 전의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몇 년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논평했습니다: "교회 자체는 '의회'이며 예배와 교회의 기타 많은 존재적 표현들 모두에서 의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 및 다른 모든 가능한 차원에서 당면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대표들이 모이는 의회가 필요합니다."³¹ 비집중화된 다양성 안의 화합, 또는 화합 속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각각의 논의 방식들은 이러한 각각의 방식은 특별한 울림을 가지며 특별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목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히 교회를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상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재고"하고 "새로운 교회의 존재 방식"을 찾으라는 촉구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중심의 교과적 자기 이해를 뛰어 넘어 국가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교과주의의 유혹을 초월하여 더 큰 보편성—이른바 *내적인(ad intra)* 보편성뿐 아니라 *외적(ad extra)* 보편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국 앞서 언급된 영국 청교도 조상들의 핵심적 견해들을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즉, 우리—어떠한 특정한 "우리"—는 전체 교회가 아니며, 우리가 가진 신념들 중 일부에 대해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모르는 무엇이든 그것을 듣기 위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연합감리교회에 던지는 질문은 교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질문과 일부 유사합니다: 충분히 다양화된 인간 공동체의 모델 및 영감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다양화된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를 어떻게 찾아서 실행해야 합니까?

30 Alexander Schmemmann, "Towards a Theology of Councils," *Church, World, Mission: Reflections on Orthodoxy in the West*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9), 163.

31 *Councils and the Ecumenical Movement*, World Council of Churches Studies 5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8), 10.

2016년 9월 세계 감리교 협의회 연설에서 Ted Campbell은 지금 연합감리교도들 앞에 놓인 질문은 우리가 분열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그는 분열이 불가피하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우리가 가능한 한 잘 분열할 수 있는가"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감리교회의 단체들이 분열 때마다 너무도 자주 동반되는 사역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분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방법은 미래의 연합들을 더 쉽게 허용할까요? 그 방법은 분열의 시점에서든 어쩌면 새로운 연합들을 창출해 내겠습니까? 우리는 웨슬리 파트너들과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방법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³² 저는 그의 질문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그가 연설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직면한 일이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이라면, 본인은 둘 중 어느 그룹에도 적응하기 힘들어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그와 완전히 동의합니다. 연합감리교도들은 정말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James Thurber는 어디선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³³) 따라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한 화합의 보다 완전한 실현과 증거를 가능하게 하면서 충분한 다양화를 허용하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촉진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것을 피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32 Ted A. Campbell, "One Faith: Address to World Methodist Conference, September 1, 2016," 미발간 자료. Campbell 교수님께 그의 연설 사본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33 Charles M. Wood, "The Primacy of Scripture," *Love That Rejoices in the Truth: Theological Explorations* (Eugene, OR: Cascade Books, 2009), 35-42 를 참조하십시오.

다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 수단들 중 가장 손쉽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인해 그들이 무엇을 얻는지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그들이 얻게 될 것—또는 적어도 그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통제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공포감을 조성하는 자들이 완수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에 빠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파악된 이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시민 사회에서 "논란의 쟁점들"과 양극화 전략들을 사용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고, 그것의 본색을 파악하고 저항하는 일,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기를 거절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사명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의 가상의 예이지만,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교회 개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보충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화로운 다양성*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된 합의*이며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보충성은 원칙적으로 어찌면 가장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지듯이, 이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정책이 채택되는 원칙입니다. "수준"라는 표현이 불쾌할 수 있지만 보충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대신에 "허용되는 가장 덜 일반적인, 또는 가장 구체적인, 맥락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마도 상향식과 하향식이 아닌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있는 이미지를 불러 일으키는 용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 "이 원칙은 개인이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임무를 그

개인에게서 가져가지 않는 것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한을 가진 당국이 보통 맡을 수 있는 일들을 더 높은 권한의 직능 당국으로 이전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³⁴ 연합감리교도 화합의 유지와 번성에 필수적인 것들을 다루는 "일반 장정(General Book of Discipline)"을 작성한 후, 이를 지역 회의에 맡겨서 일반적 통일성이 요구되지 않는 그들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입법 및 정치 조직 방식을 마련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이 원칙의 몇 가지 버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원칙은 지역 교회 또는 사역의 맥락을 비롯한 더 작은 단위 속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것으로 작업해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진행하는 것은 종종 필요할 경우 현지 상황에 억지로 맞춰질 수 있는 일반 규범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 맥락에서 만들어진)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의회적 미래의 한 측면으로서 보충성의 한 가지 이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자원이나 권력에 대한 내부적 투쟁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 상호 이해를 향해 노력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Upton Sinclair 가 언젠가 논평했듯이, 어떤 사람의 봉급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것이 그저 봉급만은 아닙니다. 권위, 명망, 명예, 특권,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맥락이 클수록 걸려 있는 이해관계도 커집니다. 해당 범위를 줄이거나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몇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해결책의 결과를 제한할 때, 이는 사람들이 약간은 긴장을 늦추도록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향하는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34 Le Groupe des Dombes, *"One Teacher": Doctrinal Authority in the Church*, trans. Catherine E. Cliffor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0), 148-49.

두 번째 개념인 조화로운 다양성은 어떤 면에서는 사후 보충성입니다. 이 용어는 유럽 개신교 교회들의 커뮤니티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상충되는 체계를 가진 교회들, 예를 들어 안수 사역과 감독에 있어 다른 구조를 가진 교회들이 서로의 직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지정합니다.³⁵ 이 원칙은 또한 공식 교리 및 교리적 기준에 관한 다양성에 얼마간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명시적으로 적용되어 온 유럽 이외의 많은 다른 장소에서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운용됩니다. 최근에는 이 원칙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2013년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과 그 이후의 행사에서 사용되어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화로운 다양성 안에서의 화합은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열을 극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열이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윤리적 문제와 관한 우리가 가진 몇 가지 차이점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마치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여 우리가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을 더 이상 탐구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치게 결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화로운 다양성"은 그러한 경우에 너무 쉽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 관련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차이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에 더 완전한 이해와 더 완전한 삶으로 인도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5 영국 감리교 학자 David Carter 가 제공한 요약 및 비판적 평가는 유익합니다: "Unity in Reconciled Diversity: Cop-out or Rainbow Church?" *Theology* 113, no. 876 (November 2010): 411-20. 또한 "The Unity of the Church: Gift and Calling," the Canberra Statemen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91)을 at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ommissions/faith-and-order/i-unity-the-church-and-its-mission/the-unity-of-the-church-gift-and-calling-the-canberra-statement> 에서 참조하십시오.

차별화된 합의는 스트라스부르 에큐메니컬 연구소(Ecumenical Research Institute in Strasbourg)에서 오랫동안 소장을 맡고 있는 Harding Meyer가 수년 전 새로 만든 용어로서 곧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 대해 의견상 상충되는 가르침을 가진 교회들이 논의와 나눔의 과정을 통해 이 가르침들이 실제로는 상충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의견상 반대되는 교리적 진술들의 근거에 깔린 "근본적인 의도" 또는 근원적인 우려 사항들을 밝히고 이것들과 그 결과 적절히 적용된 교리들이 양립할 수 있음을 알아냄으로써 설명합니다. 안수, 성사 및 이신득의 교리와 같은 주제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 사이의 의견상 매우 다루기 힘든 의견의 불일치가 이러한 경험에 의해 변화되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무엇이 차이점을 가져왔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각자의 교리를 유지할 수 있고(폐지하지 않고 다른 교리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다른 사람이 부정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 받을 수 있습니다.³⁶ 이 원칙이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교리와 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교리와 관습에 적용될 때,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부 어려움들과도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교회론 개념인 수용은 최근의 에큐메니컬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것은 기독교 교회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공의회성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회의나 의회 또는 대표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과 같은 협의회에서 도달한 결정들이 교회 전반에 걸쳐 수용되고 해석되고

36 1980 년경부터 에큐메니컬 사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 온 Meyer 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소론에서 그 의미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설명이 실린 그의 저서는 "Ecumenical Consensus," *Gregorianum* 77, no. 2 (1996): 213-25 입니다. 그는 이 용어의 발생 및 중요성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다음 저서에서 제공했습니다. "Der Prägung einer Formel: Ursprung und Intention," in *Einheit—aber wie? Zur Tragfähigkeit der ökumenischen Formel vom "differenzierten Konsens,"* ed. Harald Wagner (Freiburg: Herder, 2000), 36-58.

실행될 때에만 진정한 유효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 에큐메니컬 협의회(예를 들어, Nicaea 와 Chalcedon)의 권한에 대해 말하면서, 널리 존경 받는 에큐메니컬 연구 그룹은 다음과 같이 논평합니다:

따라서 협의회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정 수의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공의회적 회합이 합법적이고 권위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수용 현상이 필수적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시작한 수용 과정, 즉 교회 공동체의 전체 그룹이 그들의 주교들과 함께 그 가르침을 사도적 신앙의 표현으로 인정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³⁷

기독교 운동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수용의 중요성은 매우 커서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적 협의회가 가르침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에큐메니컬 협의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에큐메니컬 협의회는 결정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³⁸ 수용 과정은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지속적이고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과정이지만, 오히려 교회가 사도적 증거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³⁹

최근의 에큐메니컬 업적인 세계 교회 협의회는 텍스트 *세례, 성찬 및 묵회*(1983) 및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14) 및 루터교-로마 카톨릭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1999)은 에큐메니컬 맥락 내의 이러한 지속적인 수용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수용 과정은 차별화된 합의 원칙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안에서의 교리적,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차이점과 관련된 수용 과정의 가능성을 잠시 생각해봅시다. 연속적인 총회에서—다양한 비율의 다수표에 의해—내린 그러한 점들에 대한 일부 결정들이 상당한 비율의 우리 신도들과 성직자들, 연회 및 감독들에 의해 적어도

37 Le Groupe des Dombes, "One Teacher," 14.

38 Ibid., 112.

39 A fine, readable treatment of the concept is William G. Rusch, *Ecumenical Reception: Its Challenge and Opportunit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7).

긍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명백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수용의 개념,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의 에큐메니컬적 성찰이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까?

이것들은 *감격, 사랑 그리고 경배*에서 비록 일시적일지언정 도출해낸 우리의
에큐메니컬 노력과 교회에 대한 쇄신된 비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과 도발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성찰 및 반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소명에 대한 더 큰
이해와 더욱 완전한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록 B

그룹 리더들을 위한 도움

그룹 리더로서, 귀하의 역할은 세션을 진행하고 그룹 멤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 준비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각 그룹 멤버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 그룹 세션 전에 책의 해당하는 세션을 읽으십시오. 세션 전에 토론에 적합해 보이는 인용된 말씀이나 성경 구절들을 적어 두십시오.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 이상의 성경 번역을 참조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 미리 예상하여 당신이 다루고자 계획하는 구체적인 토론 질문들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룹에 가장 적합한 질문을 선택하십시오.
- 세션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분 일찍 도착하십시오. 품위 있게 환대하십시오.
- 각 사람이 도착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인사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귀하의 만남의 공간이 편안하고 그룹 대화에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 최상의 나눔을 위해 의자를 원 안에 배치하십시오. 그룹에게 처음부터 지시를 내리면 토론을 망치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 정각에 시작하고 종료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약속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손님을 소개하고 환영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다른 볼 일이 있으면 짧게 끝내십시오.
- 기도 요청을 열거 할 때, 험담을 하거나 결길로 세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룹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를 원하며 험담은 그것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신문 용지나 칠판 또는 화이트 보드는 그룹 대화에서 나오는 기도 요청이나 질문을 적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개방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임하십시오. 당신이 수업의 분위기를 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대답을 적을 수 있게 하십시오. 아무도 처음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열까지 세고 "먼저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와 같이 말하십시오.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대답을 해 보십시오. **미리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대답은 단지 답변의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토론을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다음 의견 및 기타 반응을 물으십시오.

- 그룹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 개방적인 태도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룹 멤버들이 귀하의 모범을 따를 것입니다. 귀하가 피상적으로만 공유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 할 것입니다. 보다 깊은 토론을 원한다면, 귀하 자신이 더 깊은 수준에서 공유해야 합니다.
- 그러나 대화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시작된 다음 자연스럽게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더 깊숙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이 세션들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깊어 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나누도록 요청하지 않으면서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끄십시오. 누군가와 눈을 마주 치고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와 같이 말하십시오.
-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다수의 대답이 나오도록 권하십시오. 한 응답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와 같이 질문하십시오.

- 그룹이 잘 대답을 안 할 경우, 먼저 대답을 한 다음 돌아가면서 대답해 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것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 줍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표시하십시오.
- "왜?"라는 질문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달라고 청하거나 예를 들어 주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그룹 세션 중 누군가가 처음으로 말했을 경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는 "좋아요"와 같은 말로 의견에 대해 확실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 대화가 논쟁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십시오. 논쟁이 과열된다고 느끼면, "이것에 대해 확고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네요"와 같은 말을 하십시오.
-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가 계속 진행되도록 유지하십시오. 몇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기회를 독차지하지 않게 진행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청하지 않는 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계속 말할 것입니다.
- 귀하 자신의 기여도를 모니터링하십시오. 당신이 대부분의 말을 한다면, 뒤로 물러서십시오.
-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토론을 계속되도록 하고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좀더 조사가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을 적은 후 나중에 답을 찾거나 누군가에게 답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세션 후에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 지원자들에게 성경을 읽어 달라고 하거나, 폐회기도를 읽거나 자신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등의 부탁을 해서 그룹 활동의 여러 측면에 그룹 멤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각 그룹 세션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권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부하는 동안 기도하십시오. 귀하의 그룹 멤버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매주 또는 매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는 귀하가 그룹을 이끄는 동안 당신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 귀하의 소그룹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모든 결석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십시오.
- 어떤 사람들은 그룹과 함께 봉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그룹을 위해 행사를 조직하는 것들을 그룹 토론만큼 그들의 영적 성장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모든 그룹이 잘 운영되려면 헌신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역을 축복합니다.